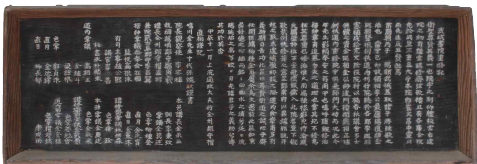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904_권직상(權直相) 지음/김환민(金煥玟) 씀_28.0×96.0cm



1904년(광무 8) 무성서원 중수 과정을 기록한 기문이다. 특히 고종대 지방관료들이 무성서원의 중수 및 간행에 기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한지 두 번째 갑자가 된다는 기록으로 보아 영정의 봉안 시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명문(銘文)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글은 전주군수 권직상(權直相)이 지었고, 글씨는 명천(鳴川) 김관(金灌, 1575~1635)의 10대손인 김환민(金煥玟)이 썼다.

武城書院重修記

衛聖尊賢其義一也院宇之制仰體校宮自建院之初有講堂講修齋絃歌樓且有各庫舍院貌矜式豈不重且大乎本院則崔文昌申靈川兩先生及五賢配焉肅廟朝丙子賜額武城蓋取諸子游絃歌之治也當寧己卯故領相李公最應賜復結金巡相聲根例扶道內刊行院誌於各郡李巡相憲植成給完文除役院村以補春秋講會多士供饋之資金巡相奎弘勸建門樓閱巡相正植例扶道內重修院宇俱是師門大功而況此今年先生影幀奉安之再周甲也嗚呼隨毀修治摺紳章甫追慕勿失之道理也當其圯不修烏在其尊重也修治惟久雨漏棟椽影貌將淪風矢牆壁神位不妥冠履服儒入此院者豈不慨歎哉例扶修葺之意呈郡藥府以冀端邪說詭起之致未遑鳩聚勘設之際道內僉章甫多有義助期日告功此豈非尊賢衛道之誠心乎齋任閱在綺柳種奎甫屬余爲文思於此益知秉彝好德之心繼而銘銘曰曲水之清兮泛泛流輻延絜之高兮皎皎月光諸君子之義助兮傳其功於英香

甲辰十一月上浣 通政大夫 行全州郡守 權

直相 謹記

鳴川 金先生 十代孫 煥玟 謹書

院長 觀察使 李容植

| | | | |
|----------|-----|--------|-----|
| 執綱 萬頃郡守 | 鄭寅義 | 訓長 | 李秉玟 |
| 講長 全州郡守 | 權直相 | 掌議 | 金箕述 |
| 兼院貳 古阜郡守 | 李昌翼 | 色掌 | 柳種奎 |
| 摺紳掌議 參奉 | 金在國 | 直月 | 金永胄 |
| 監役 | 高根洙 | 直日 | 金東洙 |
| 有司 主事 | 趙公熙 | 講修齋掌議 | 林炳森 |
| 議官 | 李○善 | 色掌 | 徐 銓 |
| 秘書承 | 朴麟來 | 本孫掌議 | 金慶述 |
| 道內掌議 | 高相奎 | 色掌 | 金永采 |
| | 金鍾斗 | 講修齋前掌議 | 金載愚 |
| | 梁誼根 | 色掌 | 姜勉會 |
| 色掌 | 郭貞洙 | 道內前掌議 | 金奎植 |
| 直月 | 金溶鐸 | 色掌 | 權滢鎬 |
| 直日 | 柳長郁 | | 李成雨 |
| 本邑講長 | 金永三 | | |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성현들을 지키고 존송하는 것은 그 의리가 한 가지다. 서원의 제도는 향교를 우러러 따르는 것이다. 서원을 막 세운 때부터 강당이 있었으며 강수재(講修齋), 현가루(絃歌樓), 그리고 각 창고까지 서원의 격식을 공경히 따랐으니 어찌 중요하고 또 큰일이 아니겠는가? 본 서원은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선생과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 두 분과 다섯 분의 현인을 배향하고 있다.

숙종 병자년(丙子, 1696, 숙종22) '무성(武城)'이라 사액을 받았으니, 이는 대개 자유(子游)가 현가(絃歌) 소리를 울리며 선정을 베풀었던 데서 뜻을 취해온 것이다. 금상(今上, 고종) 기묘년(己卯, 1879)에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이 복결(復結)을 하사하였고, 순상(巡相) 김성근(金聲根)은 도내의 각 군(郡) 서원에서 원지(院誌)를 간행하도록 도왔고, 순상(巡相) 이현직(李憲植)이 증명 문서를 발급하여 서원 마을의 부역을 없애주어 힘을 보탰다. 봄가를 강회(講會)에 여러 선비들이 음식을 보태었고, 순상(巡相) 김구홍(金奎弘)이 문루(門樓)를 세우고 순상(巡相) 민정식(閔正植)이 도내 서원의 중수(重修)를 도왔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스승 문화의 큰 공이다. 더욱이 올해엔 선생의 영정을 봉안한 후 두 번째 갑자가 돌아온 해이다.

아! 허물어진 것들을 다스려 고치는 일은 벼슬에 있는 선비들이 추모하며 잊지 말아야 할 도리이다. 허물어진

것들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높이고 중시할 수 있겠는가? 다스려 고친 일이 오래되어 서까래와 옹마루에 비가 새고 들창과 벽에 바람이 들이쳐 신위(神位)가 평안하지 않을 터이니, 이 서원에 들어오는 유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수리하는 뜻을 도와 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이단과 사설이 함께 일어나 다다랐기에 한 데 모을 겨를이 없었으나 도내의 모든 유생들이 대부분 의롭게 보탬을 주었다. 공사를 완성하고 그 공을 널리 아뢰니 이 어찌 현인들을 존모하고 도를 지키는 성심 아니겠는가? 재임(肅任) 민재호(閔在鎬)와 유종규(柳種奎)가 나에게 기문 작성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병이(秉彝)와 호덕(好德)의 마음임을 더욱 잘 안다. 이어서 명을 적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 | |
|---------|-------------------|
| 曲水之清兮 | 곡수(曲水)의 맑음이며 |
| 泛泛流觴 延 | 두둥실 술잔 흘러간다네 |
| 埳之高兮 蛟 | 연대(延埳)의 높음이며 |
| 皎月光 | 환하디 환한 달빛 비치네 |
| 諸君子之義助兮 | 여러 군자들의 의로운 도움이며 |
| 傳其功於英香 | 그 공로 꽃 향기로 널리 전하리 |

갑진년(1904, 광무 8) 11월 상완(上浣) 통정대부 행전주군수 권직상 삼가 짓다. 명천 김선생 십대손 환민 삼가 쓰다.

| | |
|---------------------|----------|
| 원장(院長) 관찰사(觀察使) | 이용직(李容植) |
| 집강(執綱) 만경군수(萬頃郡守) | 정인희(鄭寅義) |
| 강장(講長) 전주군수(全州郡守) | 권직상(權直相) |
| 겸원이(兼院貳) 고부군수(古阜郡守) | 이창익(李昌翼) |
| 진신장의(摺紳掌議) 참봉(參奉) | 김재국(金在國) |
| 감역(監役) | 고근수(高根洙) |
| 유사(有司) 주사(主事) | 조공희(趙公熙) |
| 의관(議官) | 이○선(李○善) |
| 비서승(秘書承) | 박인래(朴麟來) |
| 도내장(道內掌議) | 고상규(高相奎) |
| | 김종두(金鍾斗) |
| | 양익근(梁鎭根) |

| | |
|----------------|----------|
| 색장(色掌) | 곽정수(郭貞洙) |
| 직월(直月) | 김용택(金溶鐸) |
| 직일(直日) | 유장옥(柳長郁) |
| 본읍강장(本邑講長) | 김영삼(金永三) |
| 훈장(訓長) | 이병문(李秉玟) |
| 장의(掌議) | 김기술(金箕述) |
| 색장(色掌) | 유종규(柳鍾奎) |
| 직월(直月) | 김영주(金永冑) |
| 직일(直日) | 김동수(金東洙) |
|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 임병삼(林炳森) |
| 색장(色掌) | 서 전(徐 銓) |
| 본손장의(本孫掌議) | 김경술(金慶述) |
| 색장(色掌) | 김영채(金永采) |
| 강수재전장의(講修齋前掌議) | 김재우(金載愚) |
| 색장(色掌) | 강면회(姜勉會) |
| 도내전장의(道內前掌議) | 김규식(金奎植) |
| 색장(色掌) | 권형호(權溍鎬) |
| | 이성우(李成雨) |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